



# 행정 견제·감시 수행... 재탕 질의엔 아쉬움

## ■11대 제주도의회 두번째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 지지부진 환경정책·허술한 인사시스템 등 지적 봇물 일부 기존현안 문제점 되풀이·의원간 설전 자중론도

원회로 제주도정과 이석문 교육행정에 대한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두번째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25일 위원회별 강평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6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주도 분청과 산하기관, 행정시, 도교육청, 지방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10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원 도정과 이 교육행정의 주요 정책사업 추진사항과 민생현안을 점검·진단하고 개선방안 등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허술한 인사시스템 및 관리감독 역할 부실 등 부적절한 행정행위를 파헤치고 의혹을 제기하며 의회의 견제·감시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일부 질의는 언론을 통해 드러났거나 기존 현안 문제점을 제

기하는 재탕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행감 첫날부터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가 제2공항 건설 관련 도민공론화를 둘러싸고 의원 간 설전으로 한때 정회되는 등 파행을 빚으며 지역사회 일각에서 "자중론"이 제기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환경보전기여금, 국립공원 확대지정, 하능분화구 복원·보전사업 등 제주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환경정책의 지지부진한 문제점을 질타하며 대책마련을 주문해 주목받았다. 또 차고지증명제와 버스준공명제 등 주요 교통정책의 안일한 행정 추진 질타도 돋보였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공공기관 통합채용에 관한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마위에 올리고, 이양권한 중 미활용 권한에 대한 조례제정과 마을자치규약 정비 등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웅)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최근 진행한 일반직 공개채용과정에서 드러난 허술한 인사시스템 문제를 집중 파고들었다. 또 신뢰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관광통계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과 제주관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관광부지사' 제도 도입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주요 초청인사 격하로 인지로 하락 및 백화점식 섹션 확대로 정체성과 당초 취지를 잃고 있다는 제주포럼의 문제점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는 제주도립노인요양원의 성희롱 사건 문제를 지적하고, 장애인 등급

제 폐지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대책 마련 등 장애인편의정책 확대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농수축적위원회(위원장 고응호)는 해상풍력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정책의 도민공감대 형성 노력 부족 등을 부각시키고, 발전설비에 대한 확실한 휴경정책 마련과 해녀 부적격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주문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감시백)는 기초기본학력 향상방안 마련과 IB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강화, 특수교육원 설립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28일부터 카지노사업장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대형화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의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청원을 처리하고 31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77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오른기자 ejoh@ihalla.com

# 사파리월드, 자연체험파크로 변경 추진

## 사업자, 사파리 조성 포기 도 도시계획위, 수정 가결

제주시 구좌읍 동북리에 추진됐던 '사파리월드'가 환경훼손 논란으로 '가족형 자연체험파크'로 변경되자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5일 도청 2층 회의실에서 16차 회의를 개최,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수정 가결했다.

제주자연체험파크는 당초 '제주사파리월드'로 사업을 추진, 1521억을 투입해 사자와 호랑이 등 맹수를 포함 50여종·600여두의 사파리 체험과 북항상가 등으로 개발하려고 했다. 그러나 생태계 교란 및 곳자알 훼손 논란이 촉발되면서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사업자는 4년 동안 진행했던

사파리 개발사업을 포기하고, 제주 천혜의 자연과 생태를 활용하는 '힐링 어드벤처파크'로 계획을 변경했다. 구체적인 계획을 보면 원형 보존 지역을 약 50%에서 65%로 확대하고, 조성특지까지 포함될 경우 71%가 녹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 저류지와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제외한 '관광휴양시설'도 기존 2%에서 18%로 줄였다. 특히 맹수 등 여러가지 동물을 들이겠다는 계획은 조랑말 등 제주 토종 동물만으로 제한했다.

이날 도시계획위는 ▷공유지 제척 ▷복합적 마을과 상생협약 체결 ▷도입시설 변경에 따른 세부계획 수립 ▷곳자알 보전 및 관리계획 수립 ▷휴양기능 추가해 자연체험 강화하는 사업계획 수립 등을 조건으로 심의를 '수정 가결'했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 "먹는물 질소농도 높아져... 화학비료 줄여야"

## 김현권 의원, 마을상수도 분석

도내 마을상수도의 질산성 질소 함유량이 증가 추세인 가운데 일부 마을은 함유량이 허용한계치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제주도로부터 받은 2017년 1분기부터 2019년 3분기까지 마을상수도 수질검사결과, 제주도 전체 마을 상수도의 질산성 질소 함유량 평균은 2017년 1.25mg/l에서 2019년 1.64mg/l로 증가했다.

질산성 질소는 유기물 중의 질소 화합물이 산화 분해해 무기화한 최종 산물로 상수도에서 그 농도는 유기오염의 지표로 사용된다. 질산성 질소 허용 기준은 식수일 경우 10mg/l, 농업용수일 경우 20mg/l이다.

일부 마을은 상수도 질산성 질소 함유량이 허용한계치에 육박했다.

서귀포시 색달1마을은 2017년 1분기 상수도 질산성 질소 함유량이 5.4mg/l였는데, 올해 3분기에는 8.4mg/l를 기록했다. 구좌읍 한동마을은 2017년 1분기 4.5mg/l에서 올해 3분기 6.7mg/l로 나타났다. 표선면 표선1마을은 2017년 1분기 3mg/l에서 올해 3분기 4.2mg/l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음식물 폐기물과 가축 분뇨 재활용을 위한 유기질 비료 공급량이 늘어나는데 화학비료 사용량마저 늘어나다 보니 먹는 물의 질소 농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여 수질을 악화시키는 일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부미현기자



제주청년들의 고민은... 지난 26일 제주시청 일대에서 열린 '2019 제주청년의 날' 행사에서 '청년의 이야기' 미니포럼에 참여한 패널들이 청년들이 가진 고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상국기자

# 제2공항 키 쥔 환경부?... 전략환경평가 결과 촉각

## 국토부 제출한 보완 검토 요건 충족 못하면 또 보완 2차 보완도 미비하면 반려

최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이 환경부에 제출돼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가 환경

부의 검토 과정을 통과해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은 지난 9월 23일 환경부에 제출된 상태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환경부는 보완을 검토해 초안에서 제기했던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보완을 요청하게 된다. 국토

부가 보완을 한 뒤 다시 보고서를 제출한 뒤 재검토에서도 미비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환경부는 2차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다.

2차에 걸친 보완 요구에도 국토부가 협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두 가지 경우에 한해 반려가 가능한데, 보완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

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않아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됐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반례 시에는 환경영향평가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라 사전에 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보완한 사항이 협의 가능한 수준으로 들어오면 '협의'로 발표되고, 전혀 반영되지 않고 상당한 부분이 부족하면 한 번 더 2차 보완을 요청하게 된다"며 "그 이후에도 협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반려할 수 있는데 반려가 곧 부동의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보완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제2공항 사업 추진 일정에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협의 기관인 환경부의 의견과 별개로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절차법인데 이 같은 과정을 이행하지 않고 (고시 등) 추진할 것이라 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더라도 사실상 단계로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진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 제9기 도민감사관 공개모집

제9기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이 공개모집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제9기 도민감사관 25명을 선발한다고 27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오는 11월 6일부터 11월 28일이다.

도민감사관은 공익제보 및 불합리한 제도·관행의 개선·시정 건의를 비롯해서 ▷개선·시정 건의사항에 대한 실태확인·점검 ▷부패방지·청렴 정

척 수립 과정 참여와 의견 제시 ▷행정시 또는 읍면동 대청감사 참여 ▷감사위원장이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 참여 등이다.

신청자격은 법률, 회계, 기술, 환경, 건설, 보건 등 전문자격이 있거나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연구활동에 종사한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된 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등록된 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했었던 자 가능하다. 소상공자

재단법인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공고 2019-223호

### 제18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상임이사(원장) 모집 공고

제주지역의 평생교육 진흥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기관으로서 전문지식과 경력이 풍부하고 사회적 덕망이 있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상임이사(원장)**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9년 10월 23일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 선임예정 직위 및 인원: 상임이사(원장) 1명
- 임 기: 임용일로부터 2년
- 응모자격 요건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공고일 기준 아래의 상임이사(원장)후보자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상임이사(원장) 후보자의 자격요건(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임원 선임 규정 제15조)**

- 학력요건
  - 석사학위 이하였거나: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진흥원과 관련된 분야에서 근무·연구한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진흥원과 관련된 분야에서 근무·연구한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공무원 경력기준
  - 3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에 속하는 공무원이었던 자 또는 공무원인 자
  -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자 또는 공무원인 자로서 진흥원과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 민간경력기준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법인 등에서 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진흥원과 관련분야: 교육, 경영, 행정, 경제, 법률, 회계 및 기타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분야

-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19. 11. 4(월) ~ 2019. 11. 8(금) (5일간)
  - 접수시간: 근무시간 내(09:00~12:00, 13:00~18:00) 접수 가능(토, 일요일 접수제외)
  - 접수방법: 접수처 직접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 접수인 경우 접수마감일 근무시간 18:00까지 접수처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632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성로 473(도이동)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 \* 지원서 및 필요 서류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홈페이지(http://jiles.or.kr) 및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u.go.kr) "시합정보"란에서 출력하여 사용

\* 기타 문의 및 자세한 사항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홈페이지(http://jiles.or.kr) 공지사항을 확인하시 바랍니다.

## 제18회 추사문화예술제 개최

조선후기 문신이며 명필가이자 금석학자인 추사 김정희 선생께서 대정고을에 9년동안 유배생활을 하면서 불후의 명작 국보 제180호인 세한도와 독창적인 추사체를 완성하시고 학문과 서예역사에 큰 획을 그으신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계승, 발전하고자 2002년 7월을 시작으로 올해 18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인 **추사선생 승모 전국 회화대회**도 함께 개최하오니 추사체, 서예, 문인에 관심있는 분들도 많이 참석하셔서 대정현성에서 마음껏 기량도 뽐내고 고즈넉한 그 옛 날의 정취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 일 시: 2019년 11월 2일(토) ~ 3일(일)
- 장 소: 서귀포시 대정읍 추사관 일원
- 주 최 · 주 관: 대정고를 추사문화예술제추진위원회
- 후 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서귀포시(사)한국추사체연구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 문 의: 사무처장 강경택 010-3699-9598 / 사무국장 강훈철 010-4690-3585

**대정고를 추사문화예술제추진위원장 고석중**

## 전세 렌터카

2018. 12. 17. 제23회 소비자의날 대한민국 소비자만족도 평가 대상 수상

**4년동안 타던 차를 반납하면**  
전세보증금처럼 새차 발매 년 금액을 100% 돌려 받는 새로운 렌터카 서비스  
당신의 자산과 가치를 지켜주는 카테고리의 시작 전세렌터카로 갈아타세요!

**차고지증명제가 필요없습니다**  
똑같은 자동차 타는 방식으로 자산을 지키자!!

**개인, 법인 사업자 경비 처리됨**

매월 관리비와 기름값으로 풀옵션 차량을 탈 수 있다.  
**주행거리 제한 없는 상품**  
우리가족 누구나 운전이 가능하다. **고객의 신용상태 상관없이 이용가능**  
무로정비서비스는 **S정비업체 사고처리는 S화재**  
4년마다 원하는 신모텔 차량을 순환으로 탈 수 있다.  
**4년 뒤 보증금 100% 환불**

이전 자동차는 **소유가 아니라** **관리하고 경제적인 사용의 개념**으로 보셔야 할때,  
내가 원하는 국내 수입차 전세중 가장...

- × 세금 부담
- × 정비 부담
- × 보험 부담
- × 주행거리 제한

3보험사  
장비 보험  
S정비업체  
자금보증

국토교통부 인정 | WON CAR CTS매니저 박종욱 010-9104-4742

**전액무료** 매월최대 400,000 지급  
순서: 학원방문 상담 → 고용센터

## 내선전기 실무자 양성 및 전기기능사 자격취득 과정

**대 상** - 모집 조기마감될수있음  
실업자 / 구직자 / 매출 1억5천 미만 사업자

**교육기간**  
12월 개강예정 - 7개월 과정 - 개강일 변경 연장될 수 있음

**교육시간**  
09:00~16:00, 1일 6시간 (주5일 교육)

**교육내용**  
전기기능사, 배관배선공사, 약전, 동력설비, 소방설비등

\* **필요서류**: 내일배움카드 (카드신청후 수령까지 6주이상 기간 소요됩니다.)

**취업** 7월 23일 종료과정 21명중 17명 취업  
미취업자 취업 협의

## (주)제원직업전문학교

Tel. 749-3434 jejujewan.com

본과정은 고용노동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으로 진행합니다.

제원직업전문학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센터  
교육지원센터  
교육지원센터  
교육지원센터